

## 시편 제53편

신성근 신부

제53편은 계속되는 다윗의 시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내용은 제14편과 거의 같으며, “주님”을 “하느님”으로 대체하였다.

1. (52) [지휘자에게. 알 마할랏.<sup>1)</sup> 마스크일. 다윗]

2.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불의를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자가 없구나.

3. 하느님께서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살피신다,

그 누가 깨달음 있어

하느님을 찾는지 보시려고.

4. 모두 빛나가

온통 썩어 버려

착한 일 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5.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나쁜 짓 하는 자들

내 백성을 빵 먹듯 집어삼키는 저들

하느님을 부르지 않는 저들.

6. 거기에서, 겁낼 것이 없던 그곳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니

너를 포위한 자들의 뼈를

하느님께서 흡으시겠기 때문이다.

네가 그들에게 창피를 주리니

하느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겠기 때문이다.

1) 이 구절은 제14편 5-6에 해당하지만, 내용은 다르다.

2) ‘하느님께서 뼈를 흡으셨다.’라는 것은 시신이 온전히 땅에 매장되지 못한 채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는 하느님께서 의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음을 뜻한다.

1) 88,1에도 나오는 전문 용어이다. 칠십인역은 이를 고유명사로 이해하고 다른 그리스 말 번역들과 예로니모는 ‘합창으로’로 옮긴다(주석성경 ‘시편’, 각주 2).

7. 아,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베풀어졌으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운명을 되돌리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라.

해설도 14편을 참조.